

# 담양군, 대도시 공략 지역 농특산품 우수성 알린다

### 서울 조계사에서 직거래 장터 열어 떡갈비,한과 등 40여 품목 판매 대도시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3000명 담양 용흥사 법회 예정

담양군이 대도시 소비자들을 겨냥한 직거래장터를 열고 담양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나섰다. 군은 조계사와 꾸준한 협업으로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대도시 소비자들을 겨냥한 장터 편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대한불교 총본산 서울 조계사에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담양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장터에는 한과, 떡갈비, 추어탕, 요거트 등 40여가지 품목이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계의 큰 행사인 음력 7월 초하루 법회를 맞아 한과, 떡갈비, 추어탕, 요거트, 장류, 돼지갈비 등 담양 대표 농특산품과 가공품들이 20% 할인 판매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판매 품목은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열어온 조계사 직거래 장터 매출을 분석하여 선정한 결과 떡갈비와 추어탕, 요거트 등의 호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과 21일에는 봉은사와 도선사 신도 3000여 명이 담양 용흥사 방생법회를 찾을 예정이며 담양군은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수 농특산품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직거래 장터



서울 조계사에서 시민들이 담양 농특산품을 구입하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4~6일 대한불교 총본산 서울 조계사에서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담양군 제공

는 소비자의 나이와 계절 등을 고려해 신중히 품목을 정한 만큼 담양의 맛과 품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

로도 조계사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올해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 장성군, 5개 부문 접수

장성군이 올해로 47회째를 맞는 ‘장성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접수 분야는 교육·문화·예술, 사회복지 및 체육, 향토 방위, 산업 경제, 농업 5개 부문이다.

자격 요건은 △각 분야에 해당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도 단위 이상 공식 대회나 전시회, 학술연구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거나 창의·개발 정신을 보여줘 국가적 보전 가치를 공인받은 경우 △ 해당 분야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 몰심양면으로 공이 큰 군민이다.

추천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주 2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성군은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1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 수상은 10월 5일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개막 행사와 함께 열리는 제47회 장성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총무과(061-390-7041),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

### 무더위 농작물·가축 관리 당부 함평군, 차광막 사용 등

함평군이 최근 이중 고기압 현상으로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와 농작물,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낮 시간대(오후 12시~오후 5시) 작업을 중단하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과수원에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평소보다 물주는 양을 늘려 토양이 적당히 수분을 머금고 있도록 관리한다. 강한 직사광선이 열매에 직접 닿지 않게 가지를 속여준다.

밭작물은 이랑 피복과 스프링클러 관수로 지온 상승을 억제하고 부직포, 짚 등을 이용해 토양을 덮어 수분 증발을 방지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는 온도가 높아지는 오후에 3~4시간가량 차광막을 사용하거나, 포그(안개분무)장치를 작동하면 온실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농작물이 고온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석회와 유기물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밀폐된 축사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평소보다 사육밀도를 10~20% 낮추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10~20℃)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환기팬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축사 외부에 단열재와 차광막을 설치하여 축사 온도상승을 막아야 한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온기 농작업, 농작물, 가축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통한 긴급 영농지도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여름방학 특집 프로그램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영광군(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전북대 동아리 ‘해시태그’ (회장 안종원)와 함께 여름방학 특집 ‘떠나자 세계여행’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모하는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에 전북대 동아리 ‘해시태그’가 선정되어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11세~13세) 30명 대상으로 재능나눔 활동을 한 것.

이번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여행준비 △세계 탐험 챌린지 △우리들의 올림픽 △떠나자 문화 속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여름방학 특집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학생 형, 누나들과 함께 여권 및 만국기 만들기, 세계약기 만들기, 세계여행 퀴즈, 마시멜로 스파게티 탐 썰기 등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소년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의 자기 개발과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함평군,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함평군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 증정도 이상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약물·알콜중독, 중증정신질환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8회의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상담서비스는 주소지 상관없이 사업등록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함평군은 학교면 함평천치마을보듬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함평=신재현 기자



영광군 관계자들이 최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전북대 동아리 ‘해시태그’와 여름방학특집 프로그램 ‘떠나자 세계여행’을 진행했다. 영광군 제공

## 화순군, 폭염 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집중 대응

### 농작업시 기상 상황 수시 확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집중 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이 있다.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며, 적절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농작업을 수행할 때는 무더위 시 작업을 자제해야 하며 고령 농업인은 특히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농작업 전에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온이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작업을 가능한 한 중단하는 것이 좋다.

논과 밭 등 실외에서 작업할 때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돗자리와 음료수 등을 준비해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낄 경우,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닐하우스 등 실내 작업장에서는 온습도계를 비치해 관리 온도 범위를 유지하고 국소 냉방장치를 설치하며 주기적으로 환기해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온열질환 예방 집중 대응 기간에 농업인 안전 실천 교육과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 담양군문화재단,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 참여 예술인 모집

### 16일부터 선착순 접수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이병노)은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는 담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사진, 영상, 글을 담은 ‘예술가 프로필 제작 지원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록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 각자의 삶과 가치를 조명해 의미 있는 자신만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담양 예술인·예술단체 DB 등록 서비스에 연계된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확산·예술인 발굴 및 아카이브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향후에도 DB등록 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예술단체 대상의 다양한 연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프로필 사진과 영상은 개인의 단순 소장애 그치지 않고 담양군문화재단 문화예술 DB에 아카이빙되어 소중한 문화기록자산으로 보관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예술인 DB 등록 서비스에 신청 중이거나 등록 완료된 예술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16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담양=신재현 기자